

# 전남도당 당보



열린토론회 '도민의 소리를 듣다' 성황

전남도당은 지난 5일 무안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당원들의 열린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 발행인 칼럼



황 주 홍  
전남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

## 현재의 당사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당사 이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신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당원들께 우선 지면을 빌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도당 위원장 경선 당시 저는 전남 전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광주 인근 지역으로 당사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평소 당사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도 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남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의 의견조사를 거쳐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이 사실을 당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는 찬반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사이전 찬성이 다소 우세한 반면, 도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전남 국회의원 모임에서 여러 논의 끝에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지난 4일 개최된 상무위원회에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는 참석 상무위원 50명 중 반대 43명, 찬성 7명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상무위 표결 결과에 따라 도당 당사는 무안에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무위원회의 표결 결과는 전남 당원들의 뜻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 의결 결과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비록 당사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됐지만, 중앙당 연수원 전남 유치 공약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약속의 정치, 신뢰받는 정치 실현에 앞장”

### 도당, 6·4지방선거 비례대표 기탁금 7천600만원 반환 완료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낸 특별당비 형태의 기탁금 중 선거비용 실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난 3일자로 반환조치 했다.

이는 황주홍 위원장이 지난 1월 경선 당시 약속한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 공약과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도당에 따르면 6·4지방선거 비례대표 기탁금은 도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씩 총 48명이 낸 1억200만원이다. 도당은 이 가운데 지역 선관위의 선거보전 비용 환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이 완료된 10명을 제외한 38명에게 총 7천642만8171만원을 반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6·4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48명 가운데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기초의원 28명, 도의원 4

명이다.

기탁금은 선거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으면 각 후보에게 관행적으로 환급해왔으나 전남의 경우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환급하지 않았었다.

황 위원장은 “않은 이를 빼버린 것 같다. 약속을 지켜 후련하다. 앞으로도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당원과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운영을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비례)은 “타 시·도당 대부분이 기탁금을 반환했으나 전남만 반환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데 황 위원장께서 공약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치를 실천하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도당, 10·29 재·보선 공심위 구성

#### 함평·목포·신안 등 총 3곳서 재·보선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7일 오전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경선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승남 위원장(고흥·보성)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등록이 마감되는 데로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경선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10·28 재·보선은 도의원 1곳(함평)과 기초의원 2곳(목포, 신안)에서 치러진다. 도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함평 도의원 재·보선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정상진(52·전 월야농협 조합장), 정정희(49·은병원 경영원장), 정문호(51·도당 중소기업유치특위위원장), 이재인(54·중앙당 부대변인) 예비후보 등 4명이며, 무소속 후보 1명 등 모두 5명이 등록했다.

또 목포라선거구 시의원 선거에는 우리 당 후보로 이재용(62·자영업), 신안나선거구 군의원 선거에는 김동근(62·지역위 부위원장), 전남주(50·농업), 양훈(51·전 언론인) 예비후보 등이 등록했다.

전남도당 당보 2015. 9. 10 (제8호)

발행인 | 황주홍 편집인 | 홍지영  
편집위원 | 변중섭 · 김상인 · 김인아 · 송승환 · 장은영  
발행처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 올들어 당비수입·권리당원 수 늘었다

황주홍 위원장 취임 후 당 위기 불구 당비수입 14.6% 증가

당비약정 권리당원 11.5% 증가...11만9117명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남지역 권리당원들이 매달 내는 자발적인 당비 수입금액이 지난 1월말 4천515만원에서 8월말 현재 5천177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14.6%, 66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비 약정을 한 권리당원 수는 지난 1월말 10만6800명에서 8월말 현재 11만9117명으로 11.5%, 1만23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당이 2015년 당비 수입 및 권리당원 증감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의 당원수는 8월말 현재 총 36만3709명으로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1월말의 35만1068명보다 1만2641명, 3.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비 수입은 14.6%, 662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대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남에서 3대 째 대를 이어 당원으로

활동중인 김종대씨(65·광양)는 “4·29 재·보선 참패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권리당원과 당비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놀랍다”면서 “도당 개혁에 앞장서온 황주홍 위원장이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당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권리당원 김근영씨(43·신안)는 “분당 위기까지 내몰린 당의 위기에 불구하고 오히려 당세를 늘린 황주홍 위원장의 리더십과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지와 관심을 보내준 당원과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당의 뿌리인 전남도당이 중앙당의 개혁을 전인해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 전남 국회의원들, 공천 혁신안 '우려'

도당 당사 이전은 상무위서 결정키로

주승용 의원 최고위원직 복귀 만장일치 요구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건의하고 도당 당사 이전계획은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박지원·김성곤·주승용·신정훈·우윤근·이개호·김승남·김영록·이윤석 의원 등 당 소속 전남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의원들은 2시간여 동안 가진 만찬 회동에서 주 의원의 복귀를 전원이 강하게 요구한데 이어 황 위원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당 당사 이전은 상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발표된 8차 혁신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모임을 주선한 황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의원을 평가하고 하위 20%를 공천배제하는 혁신안에 대해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일단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외부위원으로 100% 하는 것은 국회 사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가위 구성은 전원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선거는 당에서 치르지 당외 인사들이 치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남 의원들은 선거구 문제와 관련, “농어촌 선거구가 크게 훼손돼선 안되며, 인구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역과 문화재 등이 경시되거나 무시돼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 9일 선거구획정 의견수렴 전남 공청회



제20대 총선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 지역 의견수렴 공청회가 9일 오전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구길용 광주전남기자협회장(뉴스스 부국장)과 길종백 교수(순천대 행정학과),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윤성석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참석해 선거구 개편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구길용 기자협회장은 “인구편차만을 절대기준으로 하면 농어촌 지역 의원은 계속 감소하여 농어민을 대변할 소통창구가 차단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구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성석 교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 대표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례를 소폭 줄여 농어촌 지역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2015.9.17~10.31 죽녹원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주최: 담양군, 전남남도, 산도포, 임기리, 한인신고속도로, KATA,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광주본부세관, 공익후원사, NH, 오한건설, KB국민카드, 디리미션, 원림제과, SupadElixir, 추성고물, 죽향도가, 대숲이슬영농조합법인



## “세월호 후 달라진 것이 없다”

당, 추자도 사고 진상조사단 파견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진상조사단’을 제주로 파견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 2~3일이 지나도록 승선인원, 실종자 명단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고 수습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오후 7시~7시25분 사이 추자도 신앙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해남 남성항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39분께 추자 예초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

돌고래호에는 총 21명이 승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돼 현재 실종자는 8명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돌고래호 사고는 국민 안전이 침몰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또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 호남시·도당 청년위원회 공동출범식

10월 3일 광주 5·18민주광장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고용국)는 10월 3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당 청년위(위원장 임정훈), 전북도당 청년위(위원장 양성빈)와 함께 호남 청년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추진위원장은 도당 박민건 민원국장(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 알아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치관계법을 전남도선관위에 의뢰해 문답풀이로 제공합니다.

**[Q1] 당원이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는 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으로 하여금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호별방문 제외)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원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2] 최근 언론에서 당비대납문제가 기사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 과거 처벌례 등을 보면 다양한 위법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그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인 몰래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정당에 제출하고 그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8조 등에 위반될 것이므로 당비대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3개 도당 공동 발표문



황주홍



유성엽



강창일

## 비례를 줄여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

국회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비례대표제는 이의 보조적 장치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제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당이 충분한 당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그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우리들은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에 따른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결정에 따라 놓여준 지역의 대표성과 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대두된 이 마당에 하필 우리 당이 비례 대표를 신성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국민 여론도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응답하는 데에서도 우리 당 일각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갤럽(2015. 7. 30.)에 따르면, 37%가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29%는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 16%만이 ‘지역구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결과였음.]

이에 우리들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함을 밝히고 요구한다.

2015. 8.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 황주홍

전북도당 위원장 유성엽

제주도당 위원장 강창일

상사화 피는 고향 영광  
꽃비의 고향 영광

불갑산  
상신화  
축제

□ 축제기간 : 2015. 9. 18 ~ 9. 20(3일간)

영광군



# 전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출범

초대 회장에 김유화 의원(여수)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 여성지방의원들은 6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황주홍 위원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전남여성의원협의회 출범에 합의하고 초대 회장에 김유화 의원(여수)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여성의원 40명 가운데 김유화 의원을 비롯, 김복실(장흥)·김숙희(화순) 의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황 위원장은 이날 비례대표 기탁금 반환 및 지난 4일 개최된 지역여성위원장 회의 결과, 당사

이전 추진계획 취소 배경 등을 설명하고 “도당 발전을 위한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유화 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총무간사에 이승옥 의원(구례)을, 재선의원급 이상 여성의원들을 고문과 부회장 등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도당 공동 여성위원장을 겸임(당연직)하게 된다.

# 전남도당 지역여성위원장협의회 발족

회장 김혜리(영암), 부회장 박수경(목포)

전남도당은 3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성위원장협의회 발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홍 위원장과 함께 목포 박수경·유은숙 공동여성위원장 등 16명의 지역 여성위원장이 참석해 초대 협의회장에 김혜리 영암여성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은 목포 박수경 여성위원장을, 총무 간사에 무안의 김희순 여성부장을 선출했다.

김혜리 회장은 앞으로 윤명희 도당 여성위원장, 김유화 전남 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과 함께 공동 여성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 도당, 각 지역위별로 하계수련회·자연보호 활동 개최

황주홍 위원장 공약 이행... 지역위 중심 도당 운영·당원역량 강화



신정훈 의원이 화순당원한마음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황주홍 위원장 공약인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운영’과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당원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각 지역위별로 일제히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당원 하계수련회 행사를 실시했다.

나주·화순지역위(위원장 신정훈)는 지난달 24일 나주 실내체육관에 이어 29일 화순 백야산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고흥·보성지역위(위원장 김승남)는 지난달 26일 보성군 겸백 솔밭공원에서 당원·당직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 캠페인을 겸한 하계수련회를 실시했다.

광양·구례지역위(위원장 우윤근)는 지난달 28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한 데 이어 핵심 당직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광양구례 핵심당원연수

장흥·영암·강진지역위(위원장 황주홍)도 지난달 21일 장흥(정남진리조트), 영암(천황사지구), 강진(움천면 엄지마을)에서 각각 3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또 여수갑(위원장 김성곤)은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당원연수교육을, 여수을(위원장 주승용)은 당원 역량강화 교육과 체육대회, 무안·신안(위원장 이윤석)은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목포(위원장 박지원)와 해남·진도·완도(위원장 김영록), 영광·함평·담양·장성지역위(위원장 이개호)도 조만간 당원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위원회 활성화 및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매달 당비 지원을 확대해 당원 역량강화 사업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 당원교육연수 실시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3일 영광농협 대회실에서 선거 관계법령에 대한 당원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도·군의원, 당직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임 조직국장에 최병희 전 대외협력국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달 24일 조직국장에 최병희 전 대외협력국장(45)을 임명했다.

신임 최 국장은 순천출신으로 구 민주당의 순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도당 청년국장,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당직을 두루 거쳤다. 최 국장은 “황주홍 위원장의 운영방침인 권리당원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당원·국민 중심의 민생복지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전남도당 소속 10개 지역위원회의 지역별 현황과 특성,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내용과 당직자 등을 소개합니다. ‘지역위원회 탐방’은 무순(無順)으로 연재합니다.

## (6)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 벼 도열병·과일 착과 불량 재해 인정
- 농정개혁 의정성과 돈보여
- 지역주의 정치 청산 위해 기득권 버리고
- 선거제도 개혁에도 ‘앞장’



지난달 22일 나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나주지역 당원한마음대회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이 주인인 국회와 정당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유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고질적인 계파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당 개혁과 혁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30 재보선으로 당선된 그는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첫 번째 목표인 ‘지역발전’을 위해 신 의원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방안 마련 등의 관련 법규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 △KTX 나주역 정차 26회로 대폭 증차 △혁신도시 약취해소 방안 건의 및 추진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반구축 사업 추진 △화순읍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신 의원은 무소속 나주 시장 재직시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에 얽힌 비사(秘史)가 있다. 지난 2003년 광주지역 정부기관 합동청사건립과 관련, 당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광주에 있던 노동청, 병무청, 국세청의 나주이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가 이전 후보지로 확정됐으나 허성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돌연 예산까지 제출된 사업을 취소시켰다. 이에 반발, 그는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5일간 단식농성에 나섰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기관들은 광주에 두고 혁신도시는 공동으로 나주에 건설하자는 빅딜을 했다.

천년고도 나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집념에서 비롯된 정부합동청사 나주이전 사업이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 건설이란 성과로 귀결된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농정개혁’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농업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 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정 분야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는 △벼이삭도열병을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나주배 착과불량 피해 재해대책비 21억원 확보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입법발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420만 농어민 계층을 대변할 당내 조직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을 이끌어냈다. 현재 당의 초대 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대학 졸업 후 농민운동에 뛰어든 농민운동가 출신



2008년 나주시장 재직시절 혁신도시 건설 촉구에 나선 신정훈 의원의 모습

신답게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세 번째 목표인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당원과 국민중심주의 정당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위원인 그는 지역을 불모로 한 지역주의 정치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정당 개혁을 통한 당원과 국민중심주의 정당제도 확립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실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렇게 된 데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뿌리이자 기반인 지역위원회가 바로 서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각급 회의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위 산하의 읍·면·동협의회장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모임, 농민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당이 과거와 같이 선거 때만 가동되는 선거운동 조직에 머무른다면 더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그는 청년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선두에 있는 조직이 나주지기 봉사단(단장 편남균). 봉사단은 지난 4월 ‘나주골 천년의 역사는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발족했다. 단원들은 정도전 유배지와 완사천 등 유적지 정비와 노인 배식봉사, 자연정화 활동 등에 앞장서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위원회 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홍지영 대변인

### 신정훈, 누구인가?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주도  
무소속 도의원·나주시장 거쳐  
7·30 재보선으로 여의도 입성

1964년 나주시 왕곡면에서 나주 배를 재배하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를 거쳐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4학년 때인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해 군부독재 타도와 5·18 진상규명,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화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고향으로 내려와 배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 뛰어 들었다. 나주에서 수세 폐지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또 다시 옥고를 치른 뒤 무소속으로 1995년 최연소 전남도의회에 당선돼 정치무대에 진출했다.

지난 2002년 역시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에 도전해 재선을 하고, 지난해 7·30 재보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3월 당의 초대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됐다. 광주·전남 유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제도 혁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

“남북합의 성과 과장하거나 허점 지적, 또다른 갈등 유발”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목포)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합의내용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평화방송에 출연, 이번 남북 고위급의 합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얘기(성과 과장)는 국내 정치

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사과한 것이라고 하고,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은 남한이 교훈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면 이번 합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악의 대결 상황에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

“중국 전승절 참관, 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 한 데 대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냉전구도를 깨고 주도적으로 주변 강국사이에서 균

형추 역할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일한다고 하면서 동부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미국한테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성곤 의원은 6일 오전 방송된 MBC-TV '이슈를 말한'에 출연,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주승용 의원,

한중 FTA는 ‘불공정 조공협정’ 비판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2일 “시급히 국회 내에 한중 FTA 특위 구성과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불공정’, ‘조공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기비준 요구는 대통령이 중국행 급행열차를 타기위해 농업인을 볼모로 희생시킨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일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열린 ‘벼룩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

“농식품부, 가축방역기능 검역본부 이관 무책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정부가 가축방역기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역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3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내에 현장방역 기능을 검역본부에 우선 이

관하고 그 밖의 법적권한은 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방역과 검역에 대한 총괄 부서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농식품부가 가축방역 행정 역량이나 체계를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28일 나주 원예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윤근 의원,

재해예방 특별교부금 3건, 19억 확보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지난달 26일 국민안전처를 설득해, 광양·구례 지역 재해예방 특별교부금 3건 총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재해위험지구는 ▲광양 성황지구 재해예방사업 ▲광양시 배수펌프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구례 용방면 용정리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이다. 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느 사업이나 예산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에서 ‘의정발전 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남도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활동을 법정선거구 순으로 심습니다.>

**이개호 의원,  
재해예방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4개군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소하천 정비와 배수로 개량 등의 사업비 20억원을 국가안

전처로부터 배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에도 총 5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이 의원은 “재해예방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 빨리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이 지난 3일 영광농협에서 열린 당원연수교육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  
경선 탈락시 선거 출마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자가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과 광역의원 경선 탈락 후보가 기초의원으로서 재출

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인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재출마하는 일은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한 보성 용정중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  
경로당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대부분 냉·난방비 등의 운영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루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인 경로당 등을 조성하고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협전남도지부에서 열린 여성정치참여연수에서 특강을 한 뒤 참석한 여성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영록 의원,  
김무성 대표연설, “경제실패 책임 노조에 전가...과거로 가는 개혁”**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3번이나 개혁을 외쳤고 노동개혁에 비중을 뒀지만 반성과 책임은 없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강성

노조에게 전가하는 편향된 시각과 70년대식 사고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법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상투적인 발언을 계속 했고, 국정역사교과서 채택 주장을 했는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개혁에 대한 무개념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6일 완도 생일면과 금일읍에서 희망 민생탐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윤석 의원,  
철도공단, “사기혐의 업체에 다른 사업 맡겨”**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철도시설공단의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입찰과정에서 부품 국산화를 빌미로 L사가 1천99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지만 수입품을 납품해 3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3일 “L사는 2012년 기술이전을 통한 부품 국산화 조건

으로 계약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외국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방법으로 35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단은 L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윤석 의원은 지난 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신안 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년실업, 유아원 보육료 현실화 등 다양한 질문

## 도당, 열린토론회 개최

### '도민의 소리를 듣다'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5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읍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통통토크!(通通Talk) 도민의 소리를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황주홍 위원장(장흥·영암·강진)과 박지원 의원(목포), 강성휘·권옥·박철홍 도의원과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이기정 목포시의원, 일반 당원과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황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지원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을 묻다' 모두 발언, 각계각층 도민의 영상 제안과 자유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정해진 주제 없이 백가쟁명식 비판과 의견수렴을 통해 당의 활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도민과 당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취합해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과 단결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 밥상에 신당 창당문제가 오르겠지만 정치는 생물이어서 나 자신도 어디에 설지 모르겠다. 민심의 흐름을 이기는 정치 지도자는 없다"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날 영상 제안 및 현장 자유질문 발언과 답변 요지.

#### ◇ 영상제안

▲김훈(휴대폰 판매업) =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제가 임차한 상가 건물의 경우 지난 5년간 모든 점포들의 업주가 경영난으로 1번 이상씩 바뀌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 유치 강화를 바란다.

▲강동빈(대학생)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지방대학의 경우 취업캠프나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도 많이 부족하다. 야당이 대학졸업생 일자리 확충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김지혜(대학생) =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시급이 너무 낮고 일자리도 부족해 힘들다. 아르바이트 시급의 최저임금 확대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지원에 노력해달라.

▲노봉주(농민) = 수확량이 5%만 초과되어도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있으나 품목전환이 어렵다. 농산물 수확량이 부족하면 정부가 무조건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

▲차인복(다문화이주여성) = 이주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응 방문서비스를 장기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달라. 또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전문교육도 필요하다. 이주여성도 국민으로 생각해달라.

▲이양숙(어린이집 운영) =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집들이 사명감으로 버텨내고 있다. 4년째 동결된 보육료를 인상해주고, 보육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간식을 담당하는 취사도우미를 지원해달라.

▲배성자(식당 운영) = 새누리당의 무능과 실정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바란다.

#### ◇ 현장질문

▲강성휘(도의원) = 목포와 무안 남악은 생활권이 하나다. 남악에 입점예정인 대형 마트와 아울렛이 들어서면 인근 상권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세 상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규제해달라.

▲이기정(목포시의원) = 지역발전을 위해 도당이 시군 단위 정책개발에 나서달라. 또 도당 당보에 명예주부 기자 등을 임명해 도민의 소리를 듣는 지면을 확대해달라. 각급 선거시 중앙당에서 홍보를 직접 시행하다보니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있는데 이를 개선해달라.

▲박수경(여성당원) = 전남은 야당의 뿌리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중앙당은 당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취약 시도당 위주로만 지원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해달라.

▲김남진(시민) =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다. 오만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도 어렵다.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전남 의원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하면 차라리 신당에 합류하길 바란다.

현장질문에서는 △남악신도시 대기업 쇼핑몰 입점을 불허해줄 것 △도당의 지역발전 정책개발, 각급 선거시 중앙당의 시·도당 권한 이관 △도당 당보의 지역소식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의 시·도당 지원 확대 △당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대표의 사퇴 촉구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쏟아졌다.

#### ◇ 답변

▲박지원 의원 = 남악에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목포 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무안과 영암, 해남의 상권과 식당들도 완전히 망한다. 대도시의 복합 쇼핑몰은 반대하기 어렵지만 인구 30만이 안되는 소도시든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

▲황주홍 위원장 = 영상제안 내용은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당 차원의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규제되고 분권화되어야 한다. 중앙당의 권한도 이제는 분권화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각급 선거시 중앙당의 역할을 시도당으로 이관되도록 하고 당보에 대한 건의도 적극 수용하겠다.

우리 당은 지난해 33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호남 시도당은 당원이 많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의 시정을 요구해 올 해 처음으로 두 번의 경상보조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



# 국민회의, 16대총선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개편

## 전남의 야당사

### 7. 새천년민주당의 권력투쟁(상)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위적 정계개편을 단행한다. 2000년 1월 20일,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한 것이다. 재야 운동권세력 중 친 김대중계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의 역대 의장 및 간부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로써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집권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 4년 4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연을 확대하여 간판을 바꿔 단 새천년민주당은 제1당이 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그러자 2001년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투쟁의 당사자는 동교동계와 소장파. 민주당내 터줏대감을 자처했던 동교동계는 소장파의 반란에 맞서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다가왔던 대결. 동교동계 최후의 반격카드는 무엇이었을까.

2001년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1번지 일신빌딩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 복도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무실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층의 다른 사무실들이 두터운 철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유독 이 사무실만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예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들어서면 정면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좌우로 유리 칸막이로 구획된 제법 큰 방들이 배치돼 있었다. 마치 어느 벤처기업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산뜻한 인테리어. 그러나 넓은 공간에 비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정작 주인은 없고 객들만 진을 치고 있었던 묘한 사무실. ‘딱’ ‘딱’... 경쾌한 마찰음이 들렸다.

입구 오른쪽 휴식공간인 듯한 방에 50~60대 중년 남자 4명이 짝을 지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남자 하나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 사이를 서성이며 혼수를 두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동교동계의 계보사무실인 ‘내외문제연구소’(내외연)였다. 방의 주인은 당시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를 많이 몰고 다녔던 권노갑 전 최고위원(현 상임고문).

내외연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 전 최고위원을 만나러 온 정객들로 50여명 사무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3월 개소식 직후 마포내외연 사무실은 오전 10시까지만 현역 의원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5분 남짓 권 전 최고위원과 면담하고 나오곤 했다”고 밝혔다.



1992년 단식투쟁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권노갑 전 최고위원 (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소 제공)

## 여소야대 정국 타개 실패로 당내 권력투쟁 본격화 소장파들, 2인자 권노갑 최고위원 향해 ‘포문’ 시작

###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2인자 처신 원칙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다음의 실력자는 있었다. 전두환 정권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인자였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박철언 전 국회의원(현 변호사)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현철씨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2인자로 군림했었다. DJ의 2인자는 누가 뭐라 해도 권 전 최고위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역대 정권의 2인자들과는 그 처신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호시탐탐 1인자의 자리로 승격을 꿈꾸는 과거의 2인자들과 달리, 그는 1인자 자리를 넘보지 않는 유일한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인자이면서 1인자의 자리를 넘지 않는다는 대원칙, 바로 이 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권 전 최고위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결정적 이유라는 얘기가 나왔다. 비서 출신인 한 측근인사의 전언.

“YS와 DJ 두 사람 모두 가신을 뒀지만 YS는 가신그룹의 경쟁과 서열 상승을 위한 갈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중간보스의 자율성을 보장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DJ의 동교동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교동계가 다른 정치집단보다 정치적 탄압을 많이 받기도 한 까닭에 DJ를 정점으로 철저히 종적 질서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두 가신그룹의 정치문화의 차이는 2인자들의 처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김 전 대통령이 권 전 최고위원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권 전 최고위원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데는 언제나 자신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은 권 전 최고위원의 처신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송승환 편집위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회고록 ‘순명’

김 전 대통령이 주변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권 전 최고위원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데는 언제나 자신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은 권 전 최고위원의 처신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남악  
시론

# 문재인은 문재인을 버리면 세상을 얻는다

“하늘은 하늘을 버리면 빛을 얻고,  
강은 강을 버리면 바다를 얻고,  
꽃은 꽃을 버리면 열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리면 세상을 얻는다”

몇 년전 추운 겨울 지리산 자락의 자그마한 사찰에 들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떠났던 길이었다.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차를 한잔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이다. 나는 나를 버리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문재인을 버리면 세상을 얻는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현역의원 20%를 기본으로 물갈이 하고 40% 넘게 자른단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총선 결과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도 말한다. 내년 총선을 자신의 주도하에 치르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친노무현 세력을 제외한 비노 등 다수의 정파는 문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는다. 혁신위 마무리와 함께 문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문 대표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공천심사를 통해 자신과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을 모두 쳐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몇몇 측근들은 정권교체에는 관심이 없고,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 대표의 대표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단다. 설마 하는 의구



장여진  
남도일보 부국장(서울지사)

심이 들다가도 일면 맞는 말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일부 친노세력의 내 새끼 챙기기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노측은 문 대표가 진정으로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통합을 원한다면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대표직 사퇴다.

호남의 많은 유권자는 문 대표에게 실망감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친노세력의 이기적인 행태와 문 대표의 정치력에도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신당 등 새로운 정당의 창당도 가시권에 들면서 문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친노세력의 수장으로 남아 몇몇 부하들의 국회의원 만들기에 몰두해야 할까, 아니면 문재인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세상을 얻어야 할까. 분명 답이 보인다. 그저 문 대표의 선택이 기대될 뿐이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요즈음 다수 호남민들의 마음이 새정치민주연합

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대가 너무 컸기에 실망감도 최고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보여준 90%를 넘나드는 지지율은 온데 간데 없다. 새정치연합을 뜯어 고쳐보겠다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그를 국회에 입성시켰다. 무언가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 등 지도부는 당이 환골탈퇴해 새롭게 나서라는 호남민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분당은 안되고, 현재의 당을 유지 보수해 총선과 대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호남민들의 마음 속에는 새정치연합이 지리 멀렬해 없어지는 것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 세력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힘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 한번 제대로 싸워 보라는 뜻이 더 강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꼭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호남인들의 마음은 어느 당 누구에게 있는 걸까?

다음 대선에서는 어떤 정치인에게 호감을 나타내며 기대와 지지를 보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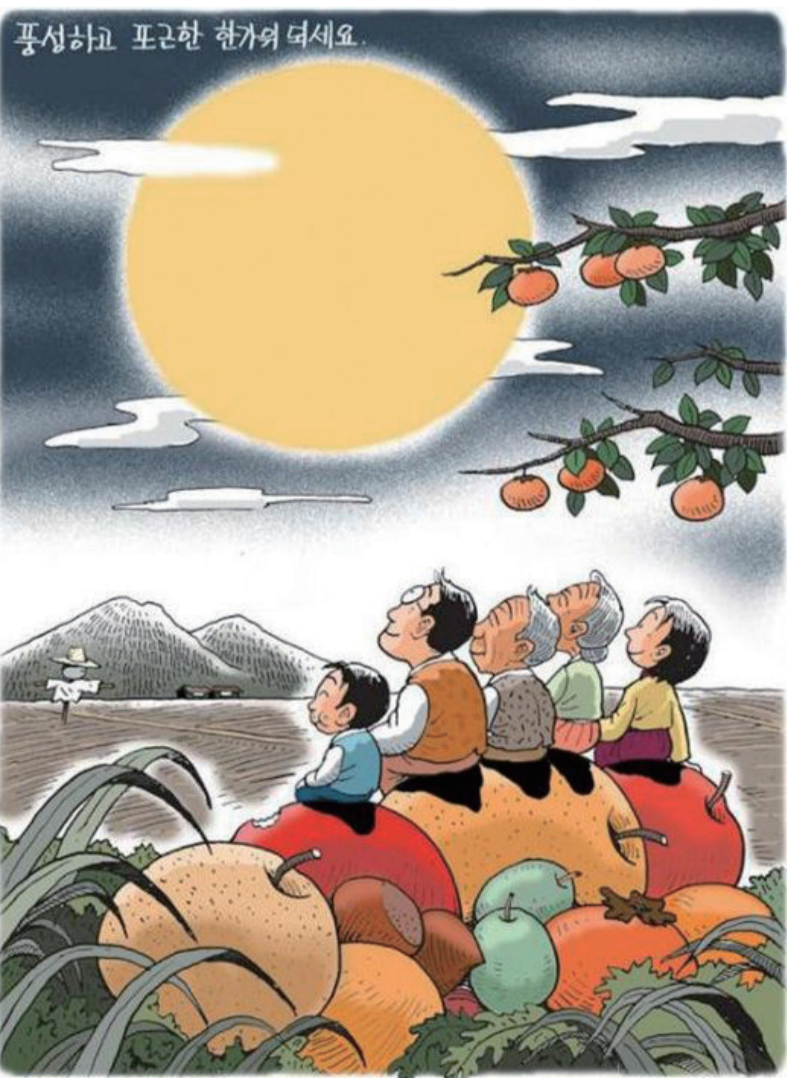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의 말은 온통 거짓으로 들리고, 그의 모습은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문 대표는 다시 한 번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달콤한 말도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들릴 것이고, 그의 온화한 미소는 보이지 않고, 그가 대접한 진수성찬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문 대표는 진정 호남인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할까.

만평

송승환 편집위원



성명서

## 심학봉 의원은 자진사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징계처리와 제명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의에서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상임위(미방위) 회의에 불참하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의 기미도 없이 국회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실수”로 치부하는 파렴치한 성 인식을 보였다. 국민들의 감정은 이미 “국회의원 OUT”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지 20여일이 흘렀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가 없다. 심학봉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고, 당시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이었다. 자진탈당을 했다고 해서 새누리당은 먼 산 불구경하듯 하며 단지 “공직자가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말로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전남여성의원협의회와 도당 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징계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지금이라도 심학봉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국회는 윤리심사자문위와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통해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기 바란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여성의원협의회-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일동



# 전남도당 8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기관지발행수입 등 11억8천320만원  
지출, 조직활동비 1억2천992만원 등 1억6천599만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의 8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억407만1418원과 당비 수입 1천601만4039원, 보조금 외 지원금 3천980만6676원, 기관지 발행수입 445만3천원을 포함해 총 12억6천917만195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649만원, 조직활동비 1억2천9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인건비 항목으로 2천956만원, 그 밖의 경비로 1만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잔액은 10억1천720만9861원을 보고드립니다.

8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주임(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08.01 ~ 08.31)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1,104,071,418	1,104,071,418	0	
	당 비	16,014,039	16,014,039	0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4,450,000	4,450,00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18,860,636	18,860,636
			하급당부	0	0
		계	18,860,636	18,860,636	
		보조금외	상급당부	39,806,676	39,806,676
	하급당부		0	0	
	계	39,806,676	39,806,676		
소 계	58,667,312	39,806,676	18,860,636		
그 밖 의 수 입	0	0	0		
합 계	1,183,202,769	1,164,342,133	18,860,636		
"지출"	선거비용	선 거 비 용	0	0	
	"기 본 경 비"	인 건 비	인 건 비	29,562,660	11,805,700
			사무소 설치 운영비	6,495,648	6,495,648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0	0
			조 직 활 동 비	129,921,100	129,921,10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0
			그 밖 의 경 비	13,500	13,50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소 계	0	0			
합 계	165,992,908	148,235,948	17,756,960		
잔 액	1,017,209,861	1,016,106,185	1,103,676		

## ● 당비 지출내역

과 목	연월일	내 역	성 명	직 업	금 액
그밖의경비	2015-08-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000
그밖의경비	2015-08-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2,5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11	사무처 다과 및 소모품 구입비	주식회사와이마트남악	도매	86,78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18	사무실 임대료(8월분)	주현주건설	건설	2,75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19	등기발송비(당보추기발송)	남양우체국	우편	4,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1	정수기 렌탈비용(자동이체)	웅진코웨이	대여	4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4	등기발송비	남양우체국	우편	4,64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4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남양도청프라자	부동산	992,728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5	사무실 CCTV이용료	씨피에스	서비스	49,5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31	복사기, 프린터 임대비(A4용지포함)	제이엔씨정보통신(복사기)	임대	353,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31	신문구독료(8월분) 한겨레 신문 외 6개		신문	91,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5	7월 전화요금(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8,05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5	7월 전화요금(자동이체)(당보레터 발송비용 포함)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2,103,29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08-25	7월 전화요금(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5,660
인건비	2015-08-0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전·조직국장,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한서링한우명가	음식	72,000
인건비	2015-08-0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대변인, 전·조직국장, 전략국장, 총무주임)	가거도맛집	음식	50,000

인건비	2015-08-06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사무처장, 민원국장, 총무주임)	백원시령강남동태양남익점	음식	30,000
인건비	2015-08-0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사무처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백원시령강남동태양남익점	음식	40,000
인건비	2015-08-10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전·조직국장, 민원국장, 나광국, 교육연구국장, 총무주임)	화목대중	음식	70,000
인건비	2015-08-10	사무처 당직자 야근식대(대변인, 기획국장)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음식	20,000
인건비	2015-08-13	사무처 당직자 식대(총무주임)	이식도스트	음식	5,400
인건비	2015-08-1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음식	46,000
인건비	2015-08-18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전·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콩주발전주콩+물국밥	음식	64,000
인건비	2015-08-18	유급사무당직자 4대 보험료 8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3,630,300
인건비	2015-08-19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콩불무안	음식	46,000
인건비	2015-08-20	당직자 인건비 미지급금(2014.03~2014.08)(6개월분)	김OO		6,000,000
인건비	2015-08-20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전·조직국장, 현·조직국장, 민원국장, 교육연구국장, 총무주임)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음식	53,00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수석사무처장	2,629,98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대변인	2,644,41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조직국장	2,639,98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전략국장	2,654,41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민원국장	2,639,98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기획국장	2,639,980
인건비	2015-08-20	상근당직자 8월분 급여	OOO	총무주임	1,908,220
인건비	2015-08-2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현·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연구국장, 총무주임)	홍배오 중화요리	음식	59,000
인건비	2015-08-2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기획국장)	백원시령강남동태양남익점	음식	30,000
인건비	2015-08-24	상근당직자 특별업무수당	OOO	전략국장	1,335,000
인건비	2015-08-2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현·조직국장, 민원국장, 여성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음식	68,000
인건비	2015-08-26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여성국장, 교육연구국장)	백원시령강남동태양남익점	음식	64,000
인건비	2015-08-28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 대변인, 총무주임)	김밥메이아	음식	13,000
인건비	2015-08-31	사무처 당직자 식대(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총무주임)	한서링한우명가	음식	40,000
인건비	2015-08-31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현·조직국장, 기획국장)	백원시령강남동태양남익점	음식	38,000
인건비	2015-08-31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가거도맛집	음식	32,000
조직활동비	2015-08-03	전남도당 관리당원 정비사업 운영비(07.29-31)(3일간)	유OO	일사역	150,000
조직활동비	2015-08-03	전남도당 관리당원 정비사업 운영비(07.29-31)(3일간)	김OO	일사역	150,000
조직활동비	2015-08-14	전남도당 인명장 수여식 및 회의관련 당직자 식대	나주곰탕대감	음식	894,000
조직활동비	2015-08-18	김대중 추모6주기 조화 구입비	환꽃	꽃	100,000
조직활동비	2015-08-18	당직자 인명장 수여식 관련 당직자 명함제작비용	후기획	제조	2,134,800
조직활동비	2015-08-18	당직자 인명장 수여식 관련 당직자 명함제작비용	이지	제작	74,800
조직활동비	2015-08-18	새정치민주연합 조기제작비용	무이사	문구	330,000
조직활동비	2015-08-18	여수당원한마음대회 관련 초청장발송비용	국회규내우체국	우체국	564,900
조직활동비	2015-08-18	제6차 당직자적십사위원회 회의의결비(하외 4명)	도당당원자치심사위원		500,000
조직활동비	2015-08-18	제5차 운영위원회의 회의의결비(유OO외 14명)	도당운영위원		1,500,000
조직활동비	2015-08-18	하절기홍보용 거리현수막 제작비용(목포 외 20개 지역)		제조	2,893,000
조직활동비	2015-08-19	전남 국회의원 간담회	해우리(서여의도)	음식	503,000
조직활동비	2015-08-20	조화 구입비(백OO 고문 별세)	탐진화원	꽃	150,000
조직활동비	2015-08-21	심학봉 저전사퇴축구 결의대회 파켓제작비용	서광광고기획	제조	33,000
조직활동비	2015-08-21	영암 월출산 천황사 정화활동(대민봉사활동)관련 식대 추가금	천황사무등거리	음식	505,000
조직활동비	2015-08-21	영암 월출산 천황사 정화활동(대민봉사활동)관련 식대	천황사무등거리	음식	1,384,000
조직활동비	2015-08-24	당보제작 원고료(남악시문)	이OO		150,000
조직활동비	2015-08-24	당보제작 원고료(전남의 아당사)	송OO		180,000
조직활동비	2015-08-24	전남도당 당보제작 관련비용(당보제작, 봉투제작 및 발송, 우체국발송료)	삼미인기획	제조	10,100,000
조직활동비	2015-08-25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간담회	사랑제한정식	음식	270,000
조직활동비	2015-08-26	전남도당 인명장 수여식 관련 다과 및 물품구입비	주식회사와이마트남악	도매	116,900
조직활동비	2015-08-27	곡성 대민봉사활동 관련 식대	제일식당	음식	1,290,000
조직활동비	2015-08-27	영암 월출산 천황사 정화활동 관련 현수막 및 어깨띠 제작비용	월출광고사	제조	693,000
조직활동비	2015-08-27	영암 월출산 천황사 정화활동 관련 물품제작 및 다과비용	농협협동조합		757,000
조직활동비	2015-08-27	전남도당 당보 편집위원 편집기회 회의비(백OO외 3명)			400,000
조직활동비	2015-08-27	전남도당 인명장 수여식 및 회의관련 당직자 식대	한서링한우명가	음식	562,000
조직활동비	2015-08-28	고흥 대민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자유투어	버스	3,850,000
조직활동비	2015-08-28	고흥 대민봉사활동 관련 타일구입비	김OO	도매	990,000
조직활동비	2015-08-28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활동 지원금(백OO 외 7명)		국의원	80,000,000
조직활동비	2015-08-28	국회의원 지역활동 지원금(백OO 외 9명)		국의원	17,250,000
조직활동비	2015-08-28	여수 당원한마음대회 관련 초청장 인쇄 및 발송운영비용	클로버디엠		645,700
조직활동비	2015-08-28	전남도당 관리당원 정비사업 운영비(2015.08.19-27)(7일간)	유OO	일사역	400,000
조직활동비	2015-08-28	전남도당 관리당원 정비사업 운영비(2015.08.19-27)(7일간)	김OO	일사역	400,000
계					165,992,908





**도당 공심위 구성**

전남도당은 7일 광주 금수 장호텔에서 공직후보자추천 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고 10·29 재·보선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다.



여수갑지역위는 지난달 29일 담양 죽녹원에서 김성곤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연수를 겸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일 서울에서 시·도지사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목포지역여성위가 2일 목포해양수산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정치 발전 참여 및 나눔봉사 성과물 발표' 행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성지역위는 지난달 26일 겸백면 솔밭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앞서 김승남 위원장이 당직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성 장흥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강진원 강진군수와 함께 우호교류협약식을 체결했다.



화순지역위는 지난달 29일 백아산 휴양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한 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도당 여성위원회와 전남여성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사퇴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Yeosu,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Marine Tourism  
国際海洋観光の中心都市麗水 国际海洋旅游中心 丽水

“여수에 오시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10景**

- 오동도
- 거문도·계도
- 향남정
- 굴포도 비탈길
- 여수세계박람회장
- 여수정비대
- 영취산산당재
- 여수미술훈민촌
- 진남관

**여수시**  
YEOSU CITY